

사계절 무한대의 활기찬인 골프프로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믹스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동점도 완공 (명절특별행11000원 특별대우)
- 우천시 9월 이후 특별요금형선제 실시
- 예약: www.hpdyneasy.co.kr 0801-320-7700

▼ KIA 윤석민 12승 1위

다승왕

SK 김광현 11승 2위 ▼

올림픽 휴식을 마치고 지난 26일 재개된 프로야구에서 팀 순위 경쟁만큼이나 스타들의 개인 타이틀 경쟁이 뜨겁다.

가장 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마운드의 두 기동 윤석민(KIA)과 김광현(SK)의 다승왕 경쟁. 좌완 김광현은 대표팀 원투펀치로 나서 일본을 침몰시켰고, 우완 윤석민은 중간과 마무리를 오가는 환상적인 릴레이 계투로 대표팀의 뒷문을 든든히 지켜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배장 투구로 철벽마운드를 합작했던 윤석민과 김광현은 26일까지 다승 1위(12승)와 2위(11승)로 뜨거운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올림픽에서 불펜으로 자리를 옮겼던 윤석민은 KIA의 에이스로 복귀, 1위 굳히기에 들어가 김광현은 팀의 막강 불펜과 타선의 지원을 등에 업고 1위 탈환에 나선다. 베이징의 영광을 뒤로한 두 투수는

베이징 동지들 다시 경쟁자로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28일부터 에이스 전쟁을 벌이게 된다.

금메달 타선의 두 주역 이용규(KIA)와 김현수(두산)의 최다안타와 경쟁은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제 2의 막을 열었다.

전반기 최다 안타 1위를 놓고 었다. 김현수는 26일 현재 4개 차로 김현수가 1위(116개) 고지에 올라 있다. 한때 최다안타 1위를 달렸던 이용규는 올림픽을 앞두고 최악의 타격감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해 1위 자리를 김현수에게 내주었다. 그러나 112개의 안타로 2위에 올라 있는 이용규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테이블 세터로 나서 0.481의 타율로 전체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물오른 이용규는 올림픽의 기세를 몰아 26일 후반기 첫 경기에서 멋진 다이빙캐치를 선보이는 등 슬럼프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다. 26일 안타 하나를 추가한 이용규는 안타왕 막판 뒤집기에 나선다.

국가대표 3번타자 김현수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최다안타 1위를 달리고 있는 김현수는 타율 0.343, 출루율 0.451로 타격 3관왕을 달리고 있다.

올림픽에서도 거침없는 타격으로 적시적소에 안타를 터트리며 해설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김현수는 26일 프로야구 후반기 첫 경기에서는 안타를 추가하지 못했다. 26일 7회 대타로 국내 무대 복귀를 앞둔 김현수는 특유의 과감한 타격으로 3관왕 굳히기에 들어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이용규 112개 2위

최다안타

두산 김현수 116개 1위 ▲

이승엽 출국... "내년 WBC도 뛰고 싶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베이징올림픽에서 인상적인 홈런 2방을 터뜨리며 야구대표팀을 금메달로 이끈 이승엽(32·요미우리)이 환희와 감동을 뒤로 하고 27일 오전 생존 경쟁을 펼칠 일본으로 떠났다. (사진)

이승엽은 출국 전 김포공항서 가진 인터뷰에서 "일단 2군에서 1군 진입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개인적인 목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언제, 어떻게 1군 경기에 출전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게 온 찬스를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승엽은 이날 곧바로 도쿄도로 가 하라 다쓰노리 감독에게 복귀 인사를 한 뒤 동료와 팀 훈련을 하고 이후 구체적인 스

케줄을 하달받을 예정이다. 25일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선수단과 함께 귀국해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최한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이승엽은 "지금도 금메달을 보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됐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당시 준결승전과 결승전 기사를 보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며 야구팬 못지않게 올림픽에서 진한 감동을 느꼈다고 말했다.

본선 풀리그에서 22타수3안타로 극히 저조했던 이승엽은 22일 일본과 준결승전에서 2-2 동점이던 8회 우측 스탠드에 쫓기는 역전 결승 투런포를 작렬시켰고 23

일 쿠바와 결승전에서는 1회 좌측 펜스를 넘어가는 결승 투런포를 날렸다.

이승엽은 "몸과 마음이 된다면 언제든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겠다. 일단 내년 3월에 열리는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참가하고 싶다. 그 이후 태극마크를 다는 문제는 곰곰이 생각해볼겠다. 국가대표로 뛰는 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왼손 엄지 인대를 수술한 뒤 통증이 지속해 올림픽 기간 장갑 안 쪽에 고무링이 포함된 특수 장갑을 착용했던 이승엽은 "수술 후 완벽한 재활까지 1년 정도 걸린다. 통증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일본에서도 특수 장갑을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경주



앤서니 김

"우즈도 없다는데..."

PGA '도이체방크' 내일 개막

최경주·앤서니 김 우승 노려

최경주(38)와 앤서니 김(23·이상 나이 키골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두번째 대회인 도이체방크 챔피언십에서 대반전을 노린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무릎 수술로 장기 결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승보너스 1천만 달러가 걸린 플레이오프 페덱스 컵은 혼전 양상이다.

지난 주 바르레이스대회에서 우승한 비제이 싱(피지)이 페덱스컵 점수 1만9천500점을 받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상위권에 올라 있는 다른 선수들과 격차는 크지 않다.

29일(한국시간) 밤 매사추세츠주 노턴의 보스턴TPC(파71·7천207야드)에서 개막될 도이체방크챔피언십 우승자에게 1만1천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승만 하면 언제든지 순위는 뒤바뀔 수 있다.

올 시즌 두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앤서니 김은 플레이오프 첫 대회에서도 공동 12위에 올라 10만1천671점으로 6위에 자리를 잡았다.

최경주는 페덱스컵 순위에서 11위(10만521점)로 처졌지만 1위 싱과 점수차는 9천점이 채 안된다. 따라서 앤서니 김과 최

경주가 도이체방크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역전은 물론이고 30명이 겨루는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 투어 챔피언십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

특히 최경주는 작년 이 대회에서 허리 부상으로 기권, 점수 쌓기에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

위창수(36·테일러메이드)는 9만7천294점으로 43위, 나상욱(24·코브라골프)은 9만6천794점으로 51위에 올라 있어 이번 대회에서 충분한 점수를 얻어야 70명만을 추려내는 다음 주 대회 BMW 챔피언십에 나갈 수 있다.

한편 우즈가 없는 틈을 타 정상상을 노리는 싱과 필 미켈슨(미국)의 야심도 만만치 않다.

싱은 2004년 대회에서 우승했을 뿐 아니라 지난 주 대회와 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에서도 우승하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미켈슨은 페덱스컵 순위에서 4위로 밀려있지만 작년 도이체방크 챔피언십 우승자라는 인연을 맺고 있다.

광주고 동문 '굿 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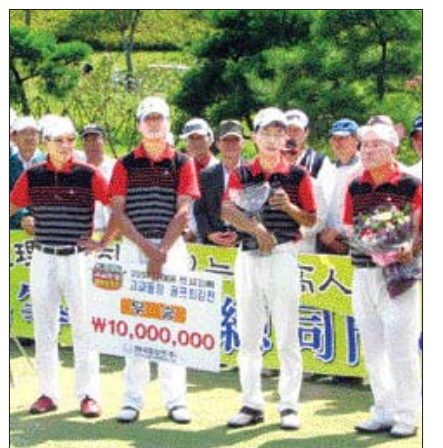
고교동창 골프최강전 우승

"광주고등학교 동문 만세!" 광주고등학교총동문회가 지난 26일 천안 버드우드골프클럽에서 열린 '2007-2008 르꼬끄골프존 고교동창 골프최강전'에서 우승, 전국에 명문 광주고의 단합된 힘과 기를 과시했다. (사진)

신양현(10회)·구민성(27회)·김병수(28회)·박준범(34회)동문으로 팀을 꾸린 광주고는 16강전 광주공고, 8강전 서울 영동고, 4강전에서 경북고를 꺾고 결승에 올랐다.

과죽지세로 결승에 오른 광주고는 서울 배재고와 치른 9홀경기에서 4승2무1패로 7홀만에 계임을 마무리 짓고 우승을 차지했다.

김영웅(11회)·(주)CNS종합건설 회장, 경영학박사) 광주고 총동문회장은 "3만여 동문들의 열화 같은 관심과 지원의 결과"라며 "과거의 명문고라는 개념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모교와 총동문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



다"고 말했다.

이상국(11회, (주)한일정공 대표) 광주고골프동호회(광우회) 회장은 "기량뿐 아니라 모교의 전통과 동문들의 끈질긴 유대감이 승리의 요인이다"고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7월 시작해 1년여 동안 전국 200여 동문회가 참여해 각축을 벌였으며 우승 상금 1천만원의 모교 학력증진기금으로 기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효천고 봉황대기야구 탈락

LPGA 영어 사용 의무화

순천효천고가 지난 26일 수원구장에서 벌어진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8강전에서 올해 무등기 우승팀인 서울 청원고에 0-2로 패해 4강 진출이 무산됐다.

순천효천고는 에이스 진명호를 내세워 4강행을 노렸지만 홈런포가 터진 청원고에 비해 팀 타선이 침묵하면서 0-2로 완봉패 당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는 내년 부터 모든 선수들에게 영어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26일 보도했다.

LPGA는 또 기존 멤버들에 대해서도 영어 구술 평가를 실시,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2년 동안 참가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LPGA의 이번 결정은 한국 골프 선수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